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광주 공연계 조심스런 기지개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 공연

시립극단 '전우치...' 13일부터 쌍암공원 100명 예약 21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이자람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시향 정기연주회 임주희 피아노 협연... 26일 문예회관



피아니스트 임주희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

광주시가 3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전환했다. 지난달 2일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지 33일 만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립예술단과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공연들을 다시 선보이는 등 공연계가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시립극단이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를 오는 13일부터 2주간 오후 8시 첨단 쌍암공원 야외무대에서 선보이며 제3회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 (9월 2-6일)에서도 만날 수 있다.

부터 아버지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전우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역병의 해악인 생명의 꽃을 구하는 모험을 그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객석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손소독,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과정을 거쳐야 입장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제로 진행, 입장은 하루 100명으로 제한한다. 무료관람. 국악인 이자람의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는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공연은 해명 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판소리로 재창작한 작품으로 문예회관 기획공연 포커스 5번째 시리즈다. 쿠바의 작은 어촌인 코히마르 마을, 평생 바다 위에서 외톨이 낚시를 하며 살아온 노인이 바다 깊은 곳의 정채지와 벌이는 한판 싸움을 오직 소리만으로 선보인다. 1막에서는 깊은 바다로 나간 노인이 정채지와 겨루는 모습을, 2막에서는 힘들게 잡은 정채지를 상어떼에게 뺏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았다.

제6회 두산연강예술상 공연부문 수상자인 이 씨는 '사천가', '역척가', '이방인의 노래', '추물/살인' 등의 작품으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은 판소리 창작자로 희곡, 근대소설 등을 판소리 형식으로 재구성해 선보이고 있다. 이날 무대에는 연출 박지혜, 무대미술가 여신동, 고수 이준형 등도 참여한다. 전석 3만원. 광주시립교향악단 제 352회 정기연주회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임주희가 등장한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와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5번'을 들려준다. 임 씨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는 등 여러 무대에 초청받으며 실력을 선보였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한편 오는 9월25일 열릴 예정이던 미사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은 코로나 19로 취소됐지만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10월20일)과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공연 (11월23일)은 예정대로 열린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Table with 3 columns: Piano categories (초등부, 중등부), names, and affiliations. Includes names like 유신호, 김재윤, 박행숙, 홍경자, 허정화, 김정아, 선수정, etc.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 확대 TV 등 영상 관람이 가능한 넷플릭스, 유튜브, 왓차, 웨이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클래스를 수강할 수 있는 클래스010, 윈터월클래스나 스마트폰으로 음악감상이 가능한 멜론, 벅스 등도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가맹점은 인터넷 결제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배송 받을 수 있다. 온라인가맹점 외에도 광주자동차극장을 이용 시 차안에서 가족과 함께 최신영화를 즐길 수 있다. 광주자동차극장은 9월 말까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2-670-7913.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수필' 통권 71호 나와 광주수필문학회(회장 김영관) 기관지 '광주수필' (통권 71호)이 발간됐다. 이번 작품집에는 전 회장인 황옥주 수필가의 '광주수필의 새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의 권두에세이를 시작으로 장호병 회원의 '바로 크는 크로바'가 초대수필에 수록됐다.

신입 회원 수필로는 주영길의 '코로나 바이러스19'와 '어머니의 초상화'가 실렸으며 사토 아이코의 '늙은이의 꿈'도 번역 게재됐다. 이밖에 장정사·오덕렬·김용하·김영관·박인순·이준배·윤영식·윤소찬·이양자·정재환 등 회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편 황옥주 전임회장은 "사람의 형상이 각각이듯이 생각 또한 각각이다. 문화에 대한 인식이란 것도 심하게 표현 하면 천설만담이다"며 "글은 작가의 생각이 담긴 '알'이고 '알집'이다. 부화되지 않으면 씩고 만다. 생각만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찮은 주제라도 우선은 써놓고 붙일"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안내' (Business Opening/Completion Notice)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such as '약초당건강원', '명품크리닝 전문점', '아주민물장어탕', '동양철학원',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유)신화로프', '인철(仁喆)익스프레스',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랑방공인중개사 사무소', '석당화랑', '고전방', '미가한우명가', '비비가',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뮤엄영어동림캠퍼스', '초대화랑', '장어수산', '우리식당', '신신예술의집', '한성꽃화원', '만복당', and '박당화랑'.